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종말관 분석 : 『四重教理』(1921), 『默示錄講義』(1918), “秋收의 雨를 빌나”(1921)를 중심으로

안수강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교회사)

- I. 들어가는 말
- II. 사중복음 관점에서의 ‘재림’ 분석: 『四重教理』(1921)를 중심으로
- III. 조직신학 관점에서의 ‘종말론’ 분석: 『默示錄講義』(1918)를 중심으로
- IV. 재림교리의 ‘실천적 관점’: “秋收의 雨를 빌나”(1921)를 중심으로
- V. 나가는 말

[초록]

본 연구에서는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저작 『四重敎理』(1921), 『默示錄講義』(1918), “秋收의 雨를 빌나”(1921) 등을 중심으로 그의 종말론에 대한 관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의 종말론에 관한 핵심적인 논지들은 이 세 편의 저작들을 통해 고찰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1년 시점 전후에 발행된 문헌들이다. 김상준의 종말론에 관한 주요 논점들과 관련하여 세 편의 문헌들에 나타난 의미심장한 논지들을 취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四重敎理』를 중심으로 사중복음과 각 교리에 해당되는 다양한 하위 주제들, 그리스도의 재림 지향적 중생과 성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해 등을 다루었다. 둘째, 『默示錄講義』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요한계시록에 대한 미래적 해석기법, 하늘과 땅의 일신변화(一新變化, 開闢) 등에 주안점을 두어 고찰했다. 셋째, 설교문 “秋收의 雨를 빌나”를 중심으로 풍년(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성취해야 할 역학적 구도, 늦은 비(성령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를 고대하는 기도의 사명, 한국그리스도인들의 고질적인 병과 치료 방책들, 한국그리스도인들의 민족복음화를 위한 책무 등을 살폈다. 넷째, 본 논문에서 천착한 중요한 논점들을 바탕으로 종말론 교육의 활성화와 민족복음화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 등 오늘날 한국그리스도인들을 선도하기 위한 실천적 모범들을 제시했다.

키워드: 김상준, 『四重敎理』, 『默示錄講義』, “秋收의 雨를 빌나”, 종말론, 민족복음화

논문투고일 2022.12.25 / 심사완료일 2023.02.27. / 게재확정일 2023.03.02.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원저 『四重敎理』(1921),¹ 『默示錄講義』(1918),² “秋收의 雨를 빌나”(1921)³ 등을 중심으로 그의 종말관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 편의 글은 그가 남긴 저작들 가운데 종말관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해주는 대표적인 자료들이며 1918년부터 1921년까지 3년 어간에 걸쳐 엇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문헌들이다. 이 저서들 중 『四重敎理』와 『默示錄講義』는 단행본 저작이고 “秋收의 雨를 빌나”는 한국교회 최초의 설교집록 『百牧講演(第一集)』(1921)에 소개된 설교문이다. 1920년을 전후한 시기는 삼일독립운동의 좌절과 아울러 일제 문화정치가 착수된 식민치하에서 한민족의 고통이 고조되었고 이렇듯 질곡이 점철된 역사적 배경에서 종말론과 관련된 문헌들이 많이 소개되었다.⁴ 김상준이 이 시기에 작성한 세 편의 유작 역시 이러한 시대적 정황을 반영한 문헌들이기도 하다. 1920년을 전후하여 4~5년 어간에 발표된 종말론 관련 저자들로는 중국인 이지명(李志明), 왕좌화(王佐華), 정의화(丁義華) 등을 비롯하여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 스왈런(William L. Swallen) 등을 들 수 있다.⁵

김상준과 정빈(鄭彬)은 일본 성결교 신학의 모체인 동경성서학원(東京聖書學院)에서 동문수학하여 1907년에 졸업했다. 김상준의 스승 나카다 지치(中田重治) 목사는 당시 일본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김상준이 동경성서학원에서 성결교신학에 입문하도록 인도한 스승이었으며 그에게 증생, 성결, 신유,

1 김상준, 『四重敎理』, 최구명 역 (牙山: 韓國聖潔教會歷史博物館, 2010), 1-185.

2 김상준, 『默示錄講義』 (平壤: 基督書院, 1918), 1-287.

3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166-72.

4 안수강, “해방 전 한국에 소개된 종말론 문헌 고찰: 장로교 선교사들의 저서와 번역서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30/1 (2022), 223.

5 이지명,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聖經雜誌』 1/6 (1918), 6-9; 왕좌화, “默示錄研究,” 『聖經雜誌』 1/1 (1918)부터 2/4 (1919)까지; 정의화,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 『聖經雜誌』 3/6 (1920), 18-22; 정의화, “예수의 再臨과 教會의 關係,” 『聖經雜誌』 4/2 (1921), 1-8;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제1권 3호 (1918)부터 제2권 3호 (1919)까지; Robert A. Hardie, “默示錄論文,” 『神學世界』 7/2 (1922)부터 7/6 (1922)까지; 『묵시록주석』 Charles A. Clark 외 2인 공역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2), 1503-78; William L. Swallen, 『묵시록공부』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2), 1-167.

재림의 사증교리를 전수했다. 김상준은 졸업 직후 정빈과 더불어 서둘러 귀국하여 같은 해 5월 종로에 소재한 염곡 동네에 우선 셋방부터 마련했다. 이곳에 성경공부반을 조직하여 복음을 가르쳤으며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으로 명명하여 전도에 힘쓰던 중 규모가 점차 커져 개교하여 학생들을 모집했다. 1912년부터 1929년까지 17년 동안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수료한 학생은 192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교육역량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성경교육과 선교활동이 활발해지자 1921년 9월 마침내 교회조직을 결의하고 오늘날 성결교회의 전신이 되는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15년이 지난 1936년 제7대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부임하여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의 모토를 걸고 전시체제로 돌입할 무렵 일제의 선교사 강제추방령이 집행되면서 한국 성결교회는 독립 교단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았다.⁶

김상준은 나카다 주지 문하로 함께 공부했던 정빈과 동역하여 1907년 성경공부반을 운영하면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개원했고 1921년에 한국성결교단을 창립했다. 같은 해 그의 대표적 저서인 『四重敎理』를 저술함으로써 사증복음이라는 신학적 인프라를 체계화했으며 성결교단의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오늘날 성결교회에서는 김상준의 사증교리를 '사증복음'(four-fold gospel)이라는 전문화된 용어로 확정하여 구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성결교회의 독특한 신학적 모토는 192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증생, 성결, 재림, 신유 등으로 제정되어 성결교회를 대변하는 고유한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다.⁷ 해방 전 이 사증복음은 항목들과 순서배치에서 몇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오늘날에는 기성(基聖)교단이 사증복음 4요소 중에서 신유는 제외했지만⁸ 예성교단에서는 여전히 증생, 성결, 신유, 재림 순서의 사증복음으로 소화하여 답습하고 있다. 다만 김상준이 전개한 증생, 성결, 재림, 신유와 대조하면 예성교단에서는 신유와 재림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다.⁹ 정상운은

6 이천영, 『聖潔教會史』(서울: 基督教大韓聖潔教會, 1970), 25-26; 예수교大韓聖潔教會事務局 編, 『예수교大韓聖潔教會 憲章』(서울: 예수교大韓聖潔教會總會本部, 2002), 14-15; 聖潔教會歷史와文學硏究會 編, 『聖潔教會人物傳(제1집)』(서울: 一正社, 1990), 18-19; 홍중국, 『영암(靈巖) 김응조(金應祖) 목사의 성결·성화론: 나는 심령이 살았다』(서울: 한들출판사, 2011), 75.

7 최희범, "한국성결교회사 소고," 『活泉』 346 (1970), 28.

8 基督教大韓聖潔教會 編, 『憲法』(서울: 基督教大韓聖潔教會出版部, 2001), 15-16.

한국성결교회사에 부각된 김상준의 고고한 위상을 500년 전 종교개혁을 선도했던 루터(Martin Luther)와 칼빈(John Calvin)의 위치에 비견할 정도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김상준이 한국성결교회사에 남긴 현저한 업적들로 한국성결교회 창립, 교파의식보다는 보편적 복음화를 추구한 연합주의(ecumenism) 노선, 선교를 지향한 구령사역의 열정, 사증복음의 확립, 복음주의 보급 등을 손꼽았다.¹⁰

지금까지 김상준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큰 틀에서 주로 사증복음과 관련하여 발표되었다. 그의 사증복음에 연계하여 설교분야, 목회상담분야, 성경적 조명분야, 세례예전분야, 선교분야, 해석분야, 목회예식분야, 예배갱신분야, 변천사 등의 주제들이 주류를 이룬다. 설교분야로는 정인교의 “성결교회의 사증복음 설교에 관한 소고: 활천에 실린(1922-1959) 사증복음 설교를 중심으로”(2006), 목회상담분야로는 전요섭의 “성결교회의 사증복음에 기초한 목회상담의 과정”(2000), 성경적 조명분야로는 홍성국의 “사증 복음의 신약적 조명: 예수님의 생애와 회심공동체의 경험을 중심으로”(1999), 세례예전분야로는 조기연의 “초기 기독교 세례예전과 사증복음”(2018), 선교분야로는 박영환의 “사증복음과 선교”(2005), 해석분야로는 윤철원의 “사증복음의 해석과 주석적 근거”(2021), 예배갱신분야로는 김승곤의 “사증복음의 예배 의식을 통한 예배 갱신”(1999)과 김형락의 “사증복음적 예배를 위하여: 예배와 목회예식에 사증복음을”(2016), 한국성결교회 사증복음 변천사로는 안수강의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四重敎理』(1921)와 그 이후 한국 성결교회의 ‘四重福音’과의 상이점 비교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¹¹ 김상준의 종말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증복

9 예수敎大韓聖潔敎會事務局 編, 『예수敎大韓聖潔敎會 憲章』, 20-34.

10 정상운, 『聖潔敎會와 歷史研究(1)』 (서울: 이레서원, 1997), 73.

11 정인교, “성결교회의 사증복음 설교에 관한 소고: 활천에 실린(1922-1959) 사증복음 설교를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32 (2006), 249-71; 전요섭, “성결교회의 사증복음에 기초한 목회상담의 과정,” 『복음과 실천신학』 1 (2000), 124-57; 홍성국, “사증 복음의 신약적 조명: 예수님의 생애와 회심공동체의 경험을 중심으로,” 『복음과 신학』 2/1 (1999), 45-87; 조기연, “초기 기독교 세례예전과 사증복음,” 『신학과 실천』 61 (2018), 61-89; 박영환, “사증복음과 선교,” 『교수논총』 17 (2005), 155-82; 윤철원, “사증복음의 해석과 주석적 근거,” 『대학과 선교』 47 (2021), 37-72; 김승곤, “사증복음의 예배 의식을 통한 예배 갱신,” 『성결신학연구』 4 (1999), 197-212; 김형락, “사증복음적 예배를 위하여: 예배와 목회예식에 사증복음을,” 『活泉』 752/7 (2016),

음에 준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소개했을 뿐 별개의 독립된 주제로 설정하여 체계성 있게 논증하지는 못했다. 이점을 염두에 두어 본 연구자는 김상준의 종말관을 단일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며 주요자료들로서 1920년을 전후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된 『四重敎理』(1921), 『默示錄講義』(1918), “秋收의 雨를 빌나”(1921) 등을 순차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 제2장에서는 성결교의 큰 신학적 틀을 담은 『四重敎理』를 중심으로 사중복음 관점에서의 ‘재림’을, 제3장에서는 『默示錄講義』를 중심으로 조직신학 관점에서의 ‘종말론’을, 제4장에서는 “秋收의 雨를 빌나”를 중심으로 ‘재림교리의 실천’을 논하고자 한다. 사중복음 관점에서의 재림과 조직신학 관점에서의 종말론은 이론적인 면에서, 재림교리의 적용문제는 실천적인 면에서 밀접하게 교섭된다. 따라서 이 세 주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추어 입체적으로 삼각도형(△)을 구형함으로써 한 지평 위에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역학구도를 형성한다. 1918년부터 1921년까지 3년 어간의 저술 연도에는 김상준의 신학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도와 무관하게 『四重敎理』, 『默示錄講義』, “秋收의 雨를 빌나”의 순서로 장을 배열했다.

II. 사중복음 관점에서의 ‘재림’ 분석: 『四重敎理』(1921)를 중심으로

『四重敎理』는 김상준이 1921년에 저술하여 출판했으며 원전의 서문과 내용은 총 170면 분량으로 편성되었다. 상하 일단(一段) 내려쓰기 국한문 혼용이며 활자체가 아닌 필사체로 집필(執筆)되었다. 경성(京城) 죽첨정(竹添町) 3정목(三丁目) 35번지 경성성서학원(京城聖書學院)에서 간행했으며 김상준이 서문 격에 해당되는 “四重敎理書”를 기술했던 시기와 장소는 같은 해 4월 14일 경성 상다동(上茶洞)으로 기록되어 있다.¹² 이 문헌은 최규명이 현대어법을 적용하여 총 177면 분량으로 번역했으며 역본 뒤에 김상준의 육필 원전을 영인본 양태로

48-49: 안수강,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四重敎理』(1921)와 그 이후 한국 성결교회의 ‘四重福音’과의 상이점 비교 연구,” 『장신논단』 53/5 (2021), 87-115.

12 김상준, 『四重敎理』, 1. “四重敎理書”

별첨함으로써 원전과 역본을 대조해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그는 ‘김상준목사기념사업회’에서 위원장으로 사역하는 동안 김상준 관련 문서들을 발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성결교단 사증교리의 기초석을 놓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四重敎理』를 각고의 노력 끝에 한글로 완역했다.¹³ 본 장에서는 『四重敎理』를 중심으로 사증교리와 각 교리별 하위 주제들, 재림 지향적 증생과 성결, 재림에 관한 이해 등을 고찰할 것이다.

1. 사증교리와 각 교리별 하위 주제들

김상준은 사증교리를 하나님께서 인간과 체결하신 언약의 관점에서 인식하여 이 교리체계를 담는 별도의 동의어로 ‘사증성약’(四重聖約, 4중의 거룩한 언약)을 교호적으로 구사했다. 그는 저서 앞부분에 별도로 할애한 “四重敎理序”에서 사증교리의 위상을 조명했다. 그는 “4중교리(四重敎理)란 것은, 즉 기독교의 허다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4중(四重)의 교리이니 신생(新生)과 성결(聖潔)과 재림(再臨)과 신유(神癒) 네 가지가 이것이다. 이 4중교리는 삼위 하나님(三位神)께서 명백히 성경 중에 말씀하여 드러내 보이신 진리이다.”¹⁴라고 확정하여 연역적 정의를 내렸다. 그는 이 사증복음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증성약을 성취해주실 것을 간구했으며 특별히 그의 저서 『四重敎理』를 탐독하는 독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신앙심, 은애(恩愛)의 열매, 영육의 강건, 부활의 영광, 거룩한 사랑, 재림을 소망하는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했다.

진리가 날마다 어그러지고 매물 되어가는 현대에 처하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독자 여러분도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잘 읽으시고, 동시에 성령의 가르쳐 이끌어줌을 얻어 이 신비한 진리에 대한 좋은 신앙력과 실제적인 은애(恩愛)를 열매 맺어 영육이 건성(健聖)[튼튼하고 거룩함-연구자 주] 무병(無病)하여 흠이 없어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를 대망

13 김성호, “發刊의 글,” 김상준, 『四重敎理』, 5.

14 김상준, 『四重敎理』, 1. “四重敎理序”

(待望)하고 있다가 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의 성스러운 사랑을 받아서
성도와 같이 큰 소리로 찬미하며 공중으로 들어 올려질지라. 아멘(살전 4장
17절) 아! 나의 사랑하는 주여. 이 4종의 성약(聖約)을 읽는 여러 형제들에게
성취하여 주시기를... 아멘.¹⁵

나카다 슈지에게서 사중교리를 체득한 김상준은 귀국한지 14년 후인 1921년
에 『四重敎理』를 출판하여 보급함으로써 한국성결교단에 사중교리의 기반을
구축했다. 김상준은 가능하면 이 사중교리 범주에서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전(全)
교리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큰 틀에서 사중복음을
바탕으로 교리를 네 개 분야로 구분한 후에 사중교리 각각에 해당되는 여러
하위 주제들을 세세하게 분류했다. 김상준의 『四重敎理』에 제시된 교리총론별
하위 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생(新生命)총론〉 영, 신생명이란?, 신생 순서 및 방법, 신앙과 사죄, 칭의,
성부로 중생, 성령에 의해 아들이 됨, 신생활 이유, 신생명 얻는 방법, 신생명의
결과, 신생명 얻은 증거, 신생명 얻은 자의 범죄, 성결을 얻을 것
〈성결총론〉 성결이란?, 성결 순서 및 방법, 헌신과 복종, 기도와 대망, 성결할
이유, 성결 얻는 방법, 성결 얻은 증거, 성결한 자의 타락, 소극적·적극적
성결, 재림 대망
〈재림총론〉 재림이란?, 성령의 시대, 공중재림, 대환란기의 시대, 지상재림,
최후의 심판
〈신유총론〉 병의 원인, 신유란?, 신유 얻는 방법, 신유 신뢰, 의약의 소용,
신유는 미신이 아님, 의약금지에 대한 문제, 신유에 관한 문답적 설명¹⁶

본 연구자는 그가 이 사중교리 체계 안에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 분야 등은
비교적 충실하게 논증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의 학술적
수준으로 발전한 조직신학 체계로 조망해보면 사중복음을 큰 폭으로 보완하더라

15 김상준, 『四重敎理』, 1-2. “四重敎理序”

16 본 연구자가 김상준의 『四重敎理』 목차를 참조하여 중생, 성결, 재림, 신유를 논증한 교리별
하위 주제들을 정리하여 약술한 것이다.

도 서론, 신문, 기독교론, 교회론 등 전 분야를 체계성 있게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기 성결교단에서도 이러한 신학적 난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四重敎理』가 간행된 지 4년 후인 1925년에 “敎理 및 聖禮典”을 마련하여 대폭 수정보완을 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성결교단 초대감독직에 봉직하던 킬보른(Ernest A. Kilbourne) 선교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신, 성경, 원죄, 자유의지, 칭의, 성결, 칭의 후의 범죄, 교회, 성례, 세례, 성찬, 신유, 재림, 운명 등”¹⁷ 총 16항목을 편성하여 개략적으로 조직신학체계로서의 일개를 갖출 수 있었다. 성결교단이 1961년에 WCC 문제가 발단이 되어 기성 측과 예성 측으로 양분된 이래 기성 측에서는 교리영역에서 신유를 제외시켰으며 “제13조(교리 신조), 제14조(성삼위 하나님), 제15조(원죄), 제16조(자유의지), 제17조(칭의), 제18조(성결), 제19조(칭의 후 범죄), 제20조(재림), 제21조(인류의 구원), 제22조(신약의 제사장), 제23조(성례전 등)”¹⁸으로 확장하여 조정했다. 한편 예성 측에서는 김상준의 사중교리 체계를 답습하면서도 “信條”에 “성경(제1절), 하나님(제2절), 사람(제3절), 중생(제4절), 성결(제5절), 신유(제6절), 재림(제7절), 교회(제8절), 부활(제9절), 천년왕국(제10절), 영생과 영벌(제11절) 등”¹⁹ 세목들을 편성하여 기성 측과 마찬가지로 확장된 교리체계를 다졌다.

2. 재림 지향적 중생과 성결

김상준이 제시한 사중교리 중 중생과 성결은 일괄적으로 재림을 지향하는 맥락을 갖추었다. 그는 중생, 성결, 재림의 서정(序程)을 논할 때 ‘중생과 성결의 연결고리’, ‘성결과 재림의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짚어냄으로써 지고의 목적 지향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었다. 그는 재림을 논하기 전에 필수적인 선행단계로서 중생과 성결을 논증했고, 이 논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재림

17 김희창, 『聖潔敎會 歷史와 宣敎』(서울: 새순출판사, 1999), 31. 1929년에 작성된 “信仰個條” 또한 동일한 16항목이 기술되었다. 이명직, 『朝鮮耶蘇敎 東洋宣敎會 聖潔敎會畧史』(京城: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1929), 10-15(“東洋宣敎會信仰個條”).

18 김경선 편, 『聖經的 基督教 敎理와 各 敎團의 敎理信仰告白信條들』(서울: 여운사, 1998), 320-23; 基督教大韓聖潔敎會 編, 『憲法』, 14-17.

19 예수敎大韓聖潔敎會事務局 편, 『예수敎大韓聖潔敎會 憲章』, 20-34.

을 관찰해냄으로써 재림을 초석으로 그 위에 중생, 성결, 재림의 삼중적 상관성을 입체화했다.

(1) 중생과 성결의 연결고리

김상준은 사중교리 입문 단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관문(關門) 격에 해당되는 중생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에 의하면, 중생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첫 걸음 단계에 위치한다. 그래서 그는 중생과 신생명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여 문장 곳곳에 교호적으로 구사했다. 개혁주의 신학 조직신학 체계와 대조하면 구원의 서정과 관련하여 그의 중생론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²⁰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상응한다. 그는 감리교 설립자 웨슬리(John Wesley)의 견해를 들어 중생한 사람은 그 후속 단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솔선해야 한다는 필연적 도의(道義)를 강조했다.

존 웨슬리 씨가 일찍이 말씀하되 “칭의란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죽을 죄인을 위하여 예수로 하여금 이루신 크신 공로[大功][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심을 인하여 사람이 속죄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요, 신생[김상준은 신생을 중생과 동의어로 구사함-연구자 주]이란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죄 중에서 죽은 자의 심중에서 이루신 큰 공[그 사람의 영을 중생하게 하신 큰 공을 말미암아 그 타락한 본체[즉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神像)]을 회복케 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²¹

김상준은 이마고 데이(imago Dei)에 대해 ‘하나님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벤전 1:4), ‘하나님의 형상과 같음’(엡 4:24), ‘예수의 형상과 같음’(롬 8:29) 등으로 표현하여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부터 아마고 데이를 회복해가야 하는

20 Cf.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454-549; 박형룡, 『教義神學: 救援論』(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111-426.

21 김상준, 『四重教理』, 31-32.

존재라고 규정했다.²² 참고로, 웨슬리는 이 형상을 “자연적 형상(불멸성, 지력, 자유의지, 정서), 정치적 형상(생물을 주관하는 지배력), 도덕적 형상(거룩성, 의로움, 순결, 진실성) 등”²³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증했다. 김상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단지 신앙, 사죄, 칭의의 단계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 시조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결의 수준으로 도약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생한 후 즉시 성결을 얻을 것을 호소했으며 만일 신생만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성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마치 도끼로 간목(幹木, 줄기부분)만 쪼개고 뿌리는 남겨놓는 격이라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고통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⁴ 바로 이 점에서 중생과 성결은 견고한 연결고리를 갖는다.

(2) 성결과 재림의 연결고리

김상준은,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신자의 형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논지에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자는 반드시 성결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그는 성결과 재림의 상관성을 논증하는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은 흠 없고 더러움 없이 인내로써 재림의 주를 고대해야 하며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 전도에 솔선함으로써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결의 삶을 조명할 때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하와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의 단심을 지킨 요셉을 비교하여 소개했다.

하와를 생각하여 보시오. (중략) 악교와 악관으로 시작하여 먹지 말라 하신 계명을 범하여 끝내 타락하는 데까지 이른 사실의 순서이다. 또 창세기 39장 10절을 보시오. (중략) 타락할 만한 유혹의 경우를 당하여[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함-연구자 주] “하나님을 경외(9절)”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까닭에 (중략) 오! 형제여. 이 두 사람의 일을 보시고, 비록 완성[적극적]한

22 김상준, 『四重敎理』, 41.

23 송흥국, 『웨슬레 神學』 (서울: 大韓基督敎書會, 1979), 69.

24 김상준, 『四重敎理』, 45-46.

후에라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지키는 태도를 잃지 않는 동시에 흠 없고 더러움 없이 인내로써 재림의 주를 고대하다가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을 피하여 사방에 성스러운 사물만 가득한 공중, 즉 성계(聖界)[천국의 세계-연구자 주]로 피안하시기를. 아멘. (중략)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리는 동시에 재림의 준비로 영력(靈力)을 얻어 부지런히 전도하여야 할 것입니다.²⁵

위의 인용문에서 성결과 재림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지키는 태도를 잃지 않는 동시에 흠 없고 더러움 없이 인내로써 재림의 주를 고대하다가” 이 대목에서 견고한 연결고리를 구형한다. 김상준이 숙고한 ‘중생과 성결의 연결고리’와 ‘성결과 재림의 연결고리’를 거시적인 틀에서 바라보면 ‘중생→성결→재림’의 서정으로 전개되어 중생과 성결 양자가 궁극적으로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구도를 구축했다. 그가 논증한 사증교리는 매 항목마다 균형을 갖춘 분량으로 중생, 성결, 재림의 순으로 전개되었지만 최고최종(最高最終)의 극구정점은 만유가 총괄적으로 회복되는 재림이다.

3. ‘재림’에 관한 이해

(1) 재림과 신유의 순서 문제

김상준이 구형한 사증교리의 세 번째 위치는 ‘재림’이고, 네 번째 위치는 신유이다. 사증교리 가운데 재림은 김상준이 자신의 종말사상을 체계화한 기반이 된다. 그는 『四重敎理』에서 재림을 논증하는 대목에서 먼저 재림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에 “성령시대, 공중재림, 대환란시대, 지상재림, 대심판”²⁶을 순차적으로 논증함으로써 당시에 유행하던 전형적인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을 취했다. 그의 은사 나카다 유지는 신유 다음에 재림을 두었으나 김상준은 자신의 소신대로 재림을 세 번째에, 신유를 마지막 네 번째 순서에 배치했다. 그렇다면 김상준은 왜 나카다 유지와는 달리 ‘재림-신유’의 순서로 뒤바꾸어 자리매김했는가?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신유단계는 재림단계와는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25 김상준, 『四重敎理』, 86-87.

26 김상준, 『四重敎理』, 89-140.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생-성결-재림’을 논리적 순서로 배치하고 신유는 독립적으로 맨 마지막 항목에 배치시켰던 것으로 사료된다. 신유는 출생으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평생 전(全) 생애와 항상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생 및 성결의 모든 과정에 개입되는 은사로 간주해야 하며, 어차피 재림 때는 육체가 흠 없고 온전한 부활체로 변화된다. 따라서 신유는 중생, 성결, 재림의 순서 어느 지점에 논리적 서정을 이루는 형태로 순서를 정하기가 곤란했으리라 본다. 김상준은 신유를 논증할 때 중생, 성결, 재림의 서정에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조명한 적이 없고 별개의 독립된 항목으로 간주했다.

(2) ‘재림-성령의 활동’의 유기적 연관성

김상준은 재림을 논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활동에 대해 논증했다. 그가 재림을 논하는 대목에서 왜 성령의 활동을 중시해야만 했는지는 ‘복음의 보편성과 천국 기업의 부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과 성화’, ‘성령을 의지하여 재림을 고대할 것’ 등 세 가지 논점에서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

첫째, 김상준은 신약시대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보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자들에게 천국의 기업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약시대에는 복음이 거의 이스라엘 세계에 머물렀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각국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야만 했고 이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순절 이래 성령께서 1800여년 장구한 세월을 걸쳐 일하셨다고 했다. 그는 성령께서 부지런히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사역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신자들을 찾으시는 간절한 심정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늙은 종을 하란에 파송했던 그 심사와 같다고 했다. 김상준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부여하실 천국의 불변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구한 천국의 기업을 성령께 위탁하셨다고 감격을 표했다.

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를 우러러 보시오. 지금 이 주께서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내어 온 땅의 백성에서 신부(즉 성도와 성 교회이다.)를 불러 모으시는 일하시기 시작하신 지 지금 1800여 년입니다. (종략) 성령으로 하여금 온 땅으로 두루 행하여 찾으시기를 옛적에 아브라함(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형(型)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즉 아드님 되시는 주의 형(型)]을 위하여 그 종[즉 성령의 형(型)]에게 자기의 “모든 아름다운 물건”(창세기 33장 10절)[즉 하나님의 일체는 예물이다.]을 부여하여 신부를 구하라고 만 나라[이 세상의 형(型)에 보냄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천국에 불변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일체의 보물, “즉 산업”(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성령에게 부여하여²⁷

둘째, 김상준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재림을 대비하는 준비의 열정은 어떠한지 냉철하게 진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점차 세속화가 심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시류에 편승하여 부패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더욱 경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신자, 성령을 찾아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진정한 신자는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오직 성화를 추구하는 자라고 설교했다.

오! 독자 형제여. 당신의 상태와 준비는 어떻습니까? 아아! 지금 신자의 수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지마는 “이름만 나고 실체는 죽는”(계시록 3장 1절) 자가 많으니 이러한 자야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바와 주의 기뻐하시는 바와 성령께 찾아가 바치고자 하시는 자는 이들 신자가 아니오. 바로 죄와 세상을 떠나고 육신을 벗어나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성도들입니다. (중략) 만일 죄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주의 신부될 신자와 교회의 자격이 되지 못할 것을 밝게 알겠습니다.²⁸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자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면 영해(靈解) 기법을 가미하여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비유를 들어 신랑은 예수를, 기름은 성령을, 등불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분명히 신랑께서 임재하시고 그를 영접할 처녀들이 존재하지만 만일 성령께서 그

27 김상준, 『四重敎理』, 95-96.

28 김상준, 『四重敎理』, 96-97.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연식에 참여하여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형제여. 또는 혹 등불[신생명]을 켜놓고 그 사이에 잡자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밤에 신랑이 오시니 “나가 맞으라”(마태 25장 5-6절 참고) 하고 미기엘이 당신도 깨우기 전에 지금 주께 나와 기름[즉 성령]을 사서 등불을 밝혀 당신의 매우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신랑 예수를 대망하시기를. 아멘. 이 시대는 바로 주께서 기름[성령] 없는 신자들에게 거저 기름을 파는 시대니 오십시오. 형제들이여. 돈 없어도 신앙을 주께 나와 받아 가지십시오.²⁹

이처럼 김상준은 ‘재림-성령의 활동’의 도식을 논거로 삼아 신약시대 복음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된 천국기업,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과 성화,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 등을 진술했다. 그는 성령의 활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논할 수 없다고 단언했으며, 오순절 성령강림과 사역의 중요성을 재림에 연계하여 숙고했다.

(3) 재림론에서 주목할 만한 논점들

김상준은 재림론 논증에서 “공중재림, 휴거(携擧), 혼인연식, 대환란시대, 지상재림, 천년왕국, 대심판 등”³⁰을 차례로 논증했다. 특이한 점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제를 설정하지 않았고 단지 지상재림에 포함시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려 하실 때의 섭리 아래에 기계적 신자로 되는 것입니다.”³¹라고 간결하게 한두 문장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주제들에 비해 천년왕국론을 경시했던 것은 아니며 『四重敎理』를 출간하기 3년 전에 출판한 단행본 저서 『默示錄講義』 후반부에서는 “千年時代와 및 惡魔의 運命과 又 最後의 審判”³²이라는 제하에 천년왕국의 맥락을 비중 있게 짚어내었다. 아래 인용문

29 김상준, 『四重敎理』, 100.

30 김상준, 『四重敎理』, 130-31.

31 김상준, 『四重敎理』, 130.

32 김상준, 『默示錄講義』, 241-49.

을 분석해보면, 김상준이 이해한 주의 재림에는 주목해야 할 두 가지의 논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초림의 내력과 재림의 내력을 한 지평에 병치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특이하게도 ‘택자선민사상’(擇者選民思想)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림이란 것은 1900년 전에 세상을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어 500여 제자가 보는 중에서 昇天하신 주 예수[사도 1장 11절]께서 우리들을[신자들만][필사체 원문 기록에는 ‘吾人들을 擇者들만’이라고 기록되었음-연구자 주] 이 괴로운[신자가 죄 사함을 얻어 안락이 있다 하나 그 가운데에도 고통이 있으니] 세상에서 구원[괴로움을 면케 하시려고] 육신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것[육신이 영체(靈體)로 변한 그대로]이니, 즉 우리 신자들이 주야로 간절한 영망(靈望)(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종략) 진실로 애석하도다. 이 재림에 대하여 신약 중에만 310여 개 구절 이상에 명백한 약속이 있는데 어찌하여 불신함으로 스스로 소망 없이 지내는 자가 되는지.³³

첫째, 그는 예수님의 초림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초림의 내력과 재림의 내력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한 지평에 병치하여 선후(先後)관계를 연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유기적으로 결속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 승천 등 초림에 관련된 사안들을 명시한 후에 재림에 대해 논증했다. 사중복음 가운데 초림이 별도의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재림을 논할 때 초림을 한 지평에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초림을 재림의 교두보로 인식했다. 그는 재림 약속이 신약에만 무려 310여 개 구절 이상 진술되었는데 재림을 부정하고 소망 없이 지내는 인생을 생각하면 실로 애석하다고 탄식했다.

둘째, 특이한 점은 그가 성결교단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신학체계에서 전혀 용납하지 않는 ‘택자선민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가 위의 인용문에 기술한 “주 예수께서 우리들을[擇者들만] 이 괴로운 세상에서 구원 육신으로 다시 강림하는 것”³⁴ 이 표현이 칼빈신학체계에서 주장하는 이중예정

33 김상준, 『四重敎理』, 89.

론(double predestinarianism)을 함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웨슬리신학에서 좀처럼 발설하기 어려운 단어를 구사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四重敎理』를 한역화(韓譯化)한 최규명은 ‘우리들을[신자들만]’이라고 한역했지만 본 연구자가 필사체 원문을 확인한 결과 김상준은 분명히 ‘吾人들을[擇者들만]’³⁵이라고 기술했다.

김상준은 중생, 성결, 재림, 신유로 정립된 사중교리 중 재림이야말로 가장 소망에 찬 미래를 제시해주는 복음이라고 확신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부단한 질고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세계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영적 동인으로 보았다. 그가 『四重敎理』를 발표하기 3년 전 별도의 287쪽의 두터운 저서 『默示錄講義』(1918)를 출판하여 후학들에게 종말사상을 교육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준다.

Ⅲ. 조직신학 관점에서의 ‘종말론’ 분석: 『默示錄講義』(1918)를 중심으로

성결교단에서 해방 이전에 보급했던 종말론과 관련된 중요한 문헌들로는 한국성결교에 사중교리의 기초를 다진 김상준의 단행본 저서 『默示錄講義』(1918)와 성결교회 기관지 『活泉』(1925-1927)에 연재된 이명직의 “審判”, “그리스도께서 來臨하심”, “携擧”, “空中의 婚宴”, “大患難時代”, “顯現”, “千年時代” 등 여러 편의 짧은 글들이 있다.³⁶ 김상준이 저작한 요한계시록 주석서인 『默示錄講義』는 1913년 감리교 홍종숙의 저작 『默示錄釋義』³⁷보다 5년 늦은 1918년에 간행되었지만 종말론 관련 단행본 저서로서 한국인의 두 번째 저작이자 성결교단 최초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 문헌은 성결교의

34 김상준, 『四重敎理』, 89.

35 김상준, 『四重敎理』 원전 원문은 79쪽.

36 “審判”, “그리스도께서 來臨하심”, “携擧”, “空中의 婚宴”, “大患難時代”, “顯現”, “千年時代” 등의 글들을 연재함. 『活泉』 47 (1925)부터 52 (1927)까지.

37 홍종숙, 『默示錄釋義』(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13), 1-113.

사중교리 중 특별히 재림신앙을 구체화한 역작이며 본문 면수만 해도 287면에 달할 정도로 당시 출판된 단행본으로서는 상당한 분량이다. 본 장에서는 조직신학 관점에서의 ‘증말론’ 분석이라는 제하에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해석기법, 하늘과 땅의 일신변화(一新變化, 開闢)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김상준은 『默示錄講義』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默示錄講義 序文”을 별첨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此 默示錄은 主의 爲한 當時의 迫害 中에 在한 諸 教會信徒의 爲한 迫害을 加하는 諸 僞惡者[거짓되고 악한 자-연구자 주] 等を 罰하는 伸冤하여 主의 事와 主의 再臨의 榮望[영광스런 소망-연구자 주]으로써 默默히 啓示하는 勸慰하며 獎勵하는 書니 箇 中의 된 일과 主의 文勢가 殆히[위태롭게-연구자 주] 戰鬪의 爲한 故로 此를 讀하는 者의 心氣가 自然히 快乎壯哉하여 悅然히 戰鬪場에 立하여 主의 爲한 모든 원수를 當場에 殲滅[섬멸: 무찔러 멸망시킴-연구자 주]하는 爲한 거슬 目擊하는 듯 하는 迫害 慰하며[핍박 받는 자를 위로하며-연구자 주] 懦者 強하고[나약한 자는 강하고-연구자 주] 眠者 醒하며[잠자는 자는 깨며-연구자 주] 淚者 拭히게 되어[우는 자는 삼가게 되어-연구자 주] 句句節節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暗暗 連發케 되느니라³⁸

김상준은 이 서문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네 가지로 밝혔는데 악인 심판,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위로하심, 재림 소망의 고취, 전투적 신자상으로 압축된다.

첫째, “諸 教會信徒의 爲한 迫害을 加하는 諸 僞惡者 等を 罰하는”라고 기술하여 재림의 의의에 대해 신자들을 핍박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응징의 차원을 강조했다.

38 김상준, 『默示錄講義』, 3.

둘째, “諸 僞惡者 等を 罰^ㅎ샤 伸冤^ㅎ여 주실 事”라고 기술하여 고난당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며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셋째, “再臨의 榮望으로써 默默히 啓示^ㅎ샤 勸慰^ㅎ시며 獎勵^ㅎ신 書”라고 기술하여 신자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고취하는 데 있다고 피력했다.

넷째, “此[요한계시록-연구자 주]를 讀^ㅎ는 者의 心氣가 自然히 快乎壯哉^ㅎ야 愕然히 戰鬪場에 入^ㅎ야”라고 기술하여 현세에서 악한 세력과 성전(聖戰)을 치르는 전투적 신자상을 진작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2.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해석기법

(1)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준거

김상준은 요한계시록 해석기법과 관련하여 ‘古代의 師父들[敎父들-연구자 주]과 ‘近世의 靈的 大家들’이 전수한 전례에 준하여 미래적 해석기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³⁹ 그가 언급한 ‘近世의 靈的 大家들’이란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들을 가리킨다. 아래 인용문에서 보여주듯이 그가 전개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휴거, 그리고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선명한 윤곽은 뚜렷하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도식을 보여준다.

靈의으로 말^ㅎ면 主의 十字架로 由^ㅎ야 발서[벌써-연구자 주] 成就되었으나 [열린 천국 문-연구자 주] 再臨 時에는 具體的으로 成就되어 我等의 肉體^ㅅ지 곳 皆 復活^ㅎ야 此開^ㅎ여 잇는 此 天門으로 入^ㅎ지니라 「喇叭과 如^ㅎ聲」 全 世界에 響聞^ㅎ 神의 聖聲이니 (중략) 日後 空中再臨 時의 喇叭聲[나팔 소리-연구자 주]이 날 世에 地上에 諸 聖徒들이 空中으로 들녀을 능가게 ^ㅎ실 豫表니라. 그러면 兄弟여 耳를 傾^ㅎ고 日夜 此 聲을 聽待^ㅎ지이다.⁴⁰

「千年 間」 예수의셔 此 地上에 再臨[지상재림-연구자 주] ^ㅎ샤 以色 列人과

39 김상준, 『默示錄講義』, 7.

40 김상준, 『默示錄講義』, 79.

및 前者에 被擧^ㄴ 一般 異邦의 聖徒와 同 가지로 此 全 世界를 統治^ㄴ시며
王^{노릇}할 時 一千年 間 「結縛^함」[마귀결박-연구자 주] 모든 罪惡과 災難의
原因 되는 此 惡魔로 同여금 手足의 動作을 同지 못^ㄴ게 同시키고 聖徒들^노
同여금 一千年 間 安息을 享^케 同시기를 爲^사 (중략) 只今 結縛^함심이니
라.⁴¹

주지하듯이, 세대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으로 대별하며 공중재림 시에 참 신자들의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공중재림, 휴거, 지상재림 등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부각된 논점들이다.⁴² 김상준은 『默示錄講義』에서 독특한 논점들
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준하여 논지를 전개
했다. 참고로, 해방 전에 유행했던 천년왕국론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대세였
지만 일부 저자들로서 민준호 역의 중국인(저자 미상) 저작 『묵시록주석』(191
3)⁴³은 무천년설을, 도슨(W. Bell Dawson)의 『오는 소망』(1934)⁴⁴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한 매우 독특한 저작들로 손꼽힌다.

(2) 주요 논점들

김상준은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해석기법에 따라 “공중재림, 일곱 봉투의 심
판, 대환란시대, 일곱 나팔의 심판, 부인과 용, 두 필의 짐승, 일곱 접시의 심판,
바벨론의 운명, 혼인연석과 지상재림,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신천신지, 영원
한 복”⁴⁵을 전개했으며 이 해석기법에 나타난 주요 논점들을 선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관련하여 상공으로 들림 받을, 즉
휴거될 유대인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된 숫자대로 144,000명(“내가

41 김상준, 『默示錄講義』, 243.

42 박형룡, 『教義神學: 來世論』(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207.

43 『묵시록주석』, 민준호 역(京城: 東洋書院, 1913), 1-183. 저자 미상.

44 W. Bell Dawson, 『오는 소망』(京城: 耶蘇教長老會總會教育部, 1934), 1-64.

45 김상준, 『默示錄講義』, 15. 일목요연하게 저서의 목차를 기록했으며 이 순서에 따라 요한계시록
석의를 전개했다.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공중재림이 성취될 때 복음의 보편성 원리에 따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⁴⁶

둘째, 지상에서 전개될 대환란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확정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도합 7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40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⁴⁷ 참고로, 「活泉」에 게재된 이명직의 글 “大患難時代”에 의하면 미국의 왓슨 박사가 노아의 홍수를 말세의 그림자로 본 주님의 견해(눅 17:26-27)에 따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총 40년 기간으로 계산한 사례가 있으며,⁴⁸ 김상준은 이 견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7장 17절에는 홍수가 40일에 걸쳐 지속되었고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기록되었다.

셋째, 공중혼인연석과 지상대환란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이루어지면서 40년에 걸쳐 진행될 지상대환란은 “일곱 봉투의 심판, 대환란시대, 일곱 나팔의 심판, 부인과 용, 두 필의 짐승, 입곱 접시의 심판, 바벨론의 운명 등”⁴⁹의 순서로 펼쳐질 것이며 이 기간 공중에서는 부활체로 휴거된 신자들이 혼인연석에 참여한다고 했다. 김상준은 혼인연석 기간에 지상에서 펼쳐질 대환란의 서정을 ‘空中再臨 后的 天國光景’과 ‘羔[고: 양을 의미함-연구자 주]의 婚姻과 및 地上再臨’ 사이에 삽입했다.

넷째, 세대구분에 있어서 고전적 세대주의 분류기법과는 달리 총 네 단계로 분류했다. 고전적 세대주의를 대변하는 스코필드(Cyrus I. Scofield)는 창조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7천년의 인류역사를 “무죄(에덴), 양심(타락-노아홍수), 인간정부(노아-바벨론), 약속(아브라함-애굽), 율법(모세-세레 요한), 은혜(교회시대), 천년왕국 등”⁵⁰ 7세대로 대별한다. 그러나 김상준은 이를 통폐합하

46 김상준, 『默示錄講義』, 117, 176.

47 김상준, 『默示錄講義』, 157.

48 이명직, “大患難時代,” 「活泉」 제50호, 20.

49 김상준, 『默示錄講義』, 15. 일목요연하게 저서의 목차를 기록했으며 이 순서에 따라 요한계시록 석의를 전개했다.

50 Cyrus I. Scofield, *The Scofield Bible Correspondence Course*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07), 21.

여 이천년의 ‘양심시대’(제1세대)와 이천년의 ‘양심과 율법시대’(제2세대), 이천년의 ‘양심과 율법과 복음시대’(제3세대)를 거쳐 천년왕국 기간의 ‘양심과 율법과 복음과 예수의 재림시대’(제4세대) 등 4세대로 압축했다는 점이 독특하다.⁵¹

3. 하늘과 땅의 일신변화(一新變化, 開闢)

김상준은 천년왕국 이후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 세상이 완전하게 소멸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신세계로의 체대(替代, 교체)가 아니라 기존의 하늘과 땅이 일신변화함으로써 천지가 신천신지로 개벽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동시대 현 세상이 소멸된 후 신세계가 등장할 것으로 본 견해는 중국인(저자 미상)의 저작 『묵시록주석』(192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저서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술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새 하늘과 새 땅)는 빛나고 새로워 처음 창조한 텅디[천지-연구자 주]와 크게 서로 다른지라 더 텅디와 바다는 업서짐이라(벧후三〇十三)”⁵²라고 기술하여 당시 다른 저서들에 보편적으로 기술된 지구개조설과는 달리 교체설을 주장하여 독창적인 견해를 개진했다. 이에 반해 김상준은 하늘과 땅의 일신변화와 개벽을 주장함으로써 지구교체설을 부정하고 지구개조설을 지지했다.

神의 聖顔의 火로 因_하야 燒亡[개벽 즉 질적 변화를 의미함-연구자 주]하고 別天 別地 곳 新天地가 出來 彼后三〇十一十三 흠이니 此는 곳 我等의 切望 ्ह는 바 新 住所나라 (중략) 多說이 有 ्ह니 (甲)은 彼后三〇十一에 天이 셔나가고 體質이 熱火에 解_하여지고 (중략) 舊天地는 온전히 消亡 ्ह고 新天地가 替代 出見 ्ह리라 ्ह고 (乙)은 (중략) 舊天地가 全然 消亡 ्ह는 거시 아니라 다만 神의 審判으로 因_하야 舊天地의 狀態가 一新 變化 ्ह는 거시라고 도 ्ह는디 見今 靈의 註釋 大家 中에서 만히 此 (乙)說을 主唱 ्ह는 者 多 ्ह니라 大概 主_의서 第八日에 新天地의 主로써 復活 ्ह심 又 七日 곳 七千年의 舊天地가 此 八日 곳 第八千年에는 新天地로써 開闢[전술한 燒亡

51 김상준, 『默示錄講義』, 246.

52 『묵시록주석』, 민준호 역, 170.

의 의미-연구자 주될지니라⁵³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김상준의 신천신지 개조설은 감리교의 홍종숙이 『默示錄釋義』을 통해, 그리고 중국인 가옥명(賈玉銘)이 『來世論』을 통해 설명한 개조설의 논점과 근본적으로 같은 궤적을 갖는다. 홍종숙은 “(新天과 新地를 見호니 初天과 初地[처음 하늘과 처음 땅-연구자 주]가 罪로 因호야 受咀호 天地와 萬物이 變호야 聖世界가 됨이라(海도 또호 復有치 안터라)”⁵⁴라고 하여 지구교체론을 부정하고 지상에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질적으로 갱신된 신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보았다. 가옥명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義가 거기 居하리라(벧후3:10-13) 하였스니 대개 불살온다(불사른다-연구자 주) 함은 滅함이 아니오 實노 낡은 것을 불살오아 다시 새로운 것을 準備함으로 新天新地를 化成[변화하여 성취됨-연구자 주]함이니라.”⁵⁵라고 주장하여 현존하는 세계가 파괴되지 않고 정화되는 과정을 거쳐 신천신지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지구개조론은 현세의 지상세계를 초월하여 이상세계에 심취한 나머지 지상의 삶을 소홀히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게 해주고 천상계와 지상계를 한 지평 위에 일원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상생애의 가치를 고취해주는 강점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의 완전갱신이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한결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지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건한 청지기상을 구현할 수 있다.⁵⁶ 참고로, 지구개조설을 취하기는 하지만 생소한 제3의 처소로서 불현계(不現界)의 새예루살렘을 개입시켜 ‘개조된 지구’, ‘불현계로서의 예루살렘’, ‘유황불 지옥’ 등으로 구형된 독특한 삼계론(三界論)을 선보인 문헌들로는 스왈런의 『목시록공부』⁵⁷, 중국인 정의화의 “默示錄의 大概”,⁵⁸ 길선주의 “末世學”⁵⁹ 등이 있다. 특히 스왈런의 삼계론 논증은 1906년 평양신학교에서 그에게 요한계

53 김상준, 『默示錄講義』, 252-53.

54 홍종숙, 『默示錄釋義』, 106.

55 가옥명, 『來世論』 정재면 역 (平壤: 長老會神學校, 1931), 87.

56 송영목, “종말론과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 베드로후서 3:10-13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7/1 (2021), 89-90.

57 William L. Swallen, 『목시록공부』, 147-55.

58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2/3 (1919. 10), 51-52.

59 길선주, “末世學(十四),” 『信仰生活』 5/10 (1936. 11), 11.

시록을 수강했던 길선주를 비롯하여⁶⁰ 후일 길선주의 말세사상을 전수받은 김정현의 삼계론 형성에 근간이 되었다. 길선주는 “末世學”(1935. 8-1936. 11)⁶¹을, 김정현은 『末世論』(1928)⁶²을 저술했다.

VI. 재림교리의 ‘실천적 관점’: “秋收의 雨를 빌나”(1921)를 중심으로

김상준은 1921년 『四重敎理』를 출판한 같은 해 『百牧講演(第一集)』에 “秋收의 雨를 빌나”를 게재했다. 이 문헌은 경성 소재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1921년에 발행되었고 인쇄는 대동(大東)인쇄주식회사에서 맡았다. 일단(一段)으로 내려쓰는 방식이 적용되었고 목차, “小引”과 “序文”, 문헌서지정보 등을 제외하고도 설교문에만 252쪽 면수가 할당되었다. 총 25인의 설교문 25편이 수록되었고 저자들 중 한국인 교역자는 20인, 선교사는 5인이며 한 사람이 한 편씩 작성했다. 문헌편집자 양익환 목사(당시 대영성서공회 시찰)는 “序文”을 통해 “本書는 牧師와 敎師 諸氏의 有力한 講說을 蒐集한 거시라. 日曜日에 禮拜式에 列席하여 講道를 듯지 못하는 사람들을 爲하고 又是 牧師 업는 鄉村敎會에서 禮拜를 引導하는 여러분을 爲하여 偏執한 거시며”⁶³라고 소신을 밝혀 평소 말씀을 접하기 어려운, 특별히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보급되기를 기원했다.

김상준이 기고한 “秋收의 雨를 빌나”는 그의 재림교리를 삶속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秋收의 雨를 빌나”라는 제하에 성경본문을 스가랴 10장 1절 “장마

60 *The Minutes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Seoul, Sept. 12-17, 1906*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6), 25-26.

61 길선주의 “末世學”은 「信仰生活」 1936년 8-9월 합본부터 1936년 11월까지 총 14차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그의 자제 길진경이 현대어체로 교정하여 196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길진경 편, 『靈溪 吉善宙 牧師 遺稿選集(第一輯)』 (서울: 大韓基督敎書會, 1968), 1-354.

62 김정현, 『末世論』 (京城: 彰文社, 1928), 1-99.

63 梁翊煥, “序文,”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3(“序文”의 면수).

제가 되거든 여호와께 비누리시기를 빌고 곳 번기를 지으신 여호와께 求하라
 더가 또한 소나이를 누리시고 각 사람의 밧해 죄소를[밭에 채소를-연구자 주
 주시리라” 이 구절을 선정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고찰
 한 두 권의 단행본 『四重敎理』과 『默示錄講義』가 이론적인 논점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본 장에서 살펴볼 설교문 “秋收의 雨를 빌나”는 재림을 갈망하며 구령
 사역에 매진해야 할 실천적 의무를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모색한 유익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앞서 『四重敎理』 재림론에서 살펴보
 았듯이 전도와 재림을 한 맥락선상에서 엮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리는
 동시에 재림의 준비로 영력(靈力)을 얻어 부지런히 전도하여야 할 것입니다.”⁶⁴
 라고 당부함으로써 재림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통한 구령사역에
 헌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본장에서는 재림교리의 실천 차원에서 “秋收의
 雨를 빌나”를 중심으로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도를 적용하여 전도에 관한 논점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논점들을 분석하면 ‘기’의 단계에는 풍년의 역학적
 구도, ‘승’의 단계에는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 ‘전’의 단계에는
 고질병 진단 및 치료책들, ‘결’의 단계에는 민족복음화의 책무가 제시되어 있다.

1. ‘기’(起)의 단계: 풍년의 역학적 구도

- ‘이른 비, 늦은 비, 농부, 토양, 가을 추수’

김상준이 논증하는 풍년은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누가 알곡추수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다.
 그가 이 설교문에 적용한 성경해석 기법은 다분하게 우화적 해석(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띄지만 본 연구자는 성경해석에 관한 문제보다는 그의 신앙
 적 소양 탐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김상준은 밭에 수많은 농작물들을 가꿀지라도 풍요로운 수확을 얻기 위해서
 는 이른 비(봄비), 늦은 비(가을비),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 기름진 옥토,
 농부의 마지막 가을 추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 복합적 요소들이

64 김상준, 『四重敎理』, 87.

일사분란하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풍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실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근거하여 추수와 직결된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른 비는 영적으로 오순절 성령강림을, 늦은 비는 종말에 부어주실 성령을, 추수는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는 말세를, 씨를 뿌리고 추수의 비를 간구하는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자는 복음을, 밭은 인간의 마음 밭(心田)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제 神靈의 田(고린도전서 三〇九) 씨 부리는 者(마태十三〇三十七) 되신 예수께서는 更貴한 靈魂의 열매[열매-연구자 주]를 바라시고 生命의 種子 곧 福音을 全 世界人의 心田에 뿌리시고 此 秋收 時 늦은 末世에 大雨를 懇切히 빌고 苦待함 이외다. 議論컨대 昔日 教會創立 時 곧 五旬節에 聖神 降臨함은 農事 始作할 時에 春雨[이른 비-연구자 주] 갖고 今日時代 終末에 聖神을 부어주심은 農事를 맞칠[마칠-연구자 주] 時에 늦은 秋雨[늦은 비-연구자 주]와 늦습니다. 此 末日을 當함 吾人 等の 懇切히 祈禱하고 苦待함 거슨 此 秋雨을시다.⁶⁵

김상준은 이 ‘기’의 단계를 전개한 후에 ‘승’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마음 밭이 온통 박토라며 “現今 人心의 強하고 頑惡함이 彼 旱田보다 더욱 甚하고 福音의 種子가 結實 成熟키 어려운 식물[까담-연구자 주]이을시다”⁶⁶라고 토론했다. 그는 당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매우 강경하고 완악하여 그 마음 밭이 옥토(沃土, 沃畚)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전(旱田: 메마른 땅)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으며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이 절실하다고 독려했다.

2. ‘승’(承)의 단계: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

김상준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간구해야 할 비는

65 김상준, “秋收의 雨를 빌나,” 167.

66 김상준, “秋收의 雨를 빌나,” 167.

가을추수를 위한 '늦은 비' 즉 추우(秋雨)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른 비는 이미 2천 년 전 사도시대에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취된 과거사이고,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성령의 사역에 직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승'의 단계에서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마음 받은 풍년은 고사하고 이미 메마른 땅으로 전락하여 전혀 추수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고 더 이상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즉 풍년의 역학적 구도를 구성하는 이른 비, 늦은 비, 농부, 토양, 가을 추수 중에서 '토양과 '늦은 비'에 난제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然則[그런즉: 사람들의 마음이 한전으로 변했은즉-연구자 주] 彼 旱田을 엷더케 ㅎ여야 潤沃[물이 풍부하여 비옥함-연구자 주]케 ㅎ야 穀物노 ㅎ야곰 能히 結實도 ㅎ며 成熟케도 ㅎ겟느나 ㅎ면 雨[가을비-연구자 주]가 ㄴ려야 겿습니다. 이와 ㄴ치 現世 人心의 감을도[기름도-연구자 주] 큰 雨가 ㄴ려야 비로소 靈의 열미를 ㄴ기도 ㅎ며 成熟키도 ㅎ야 秋收官 되시는 예수씨서 降臨(야고보五〇八) ㅎ시는 日[재림-연구자 주]에 거두워 ㄴ실 거시 잇겿습니다. 然故로 (세가리아十〇-)을 보면 하느님씨서 吾人 等의게 雨를 빌나고 命令 ㅎ섯습니다. 然則 우리는 맛당히[마땅하-연구자 주] 이 하느님의 命令을 依 ㅎ야 此 秋雨를 비려야 ㅎ겿습니다.⁶⁷

이렇듯 김상준은 '승'의 단계에서 당대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간파하여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사명을 독려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것은, '승'과 '전'의 상관관계가 매우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는 '승'의 단계에서는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과 한전으로 전락한 마음 받을 지적했다. 그러나 '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화제를 전환하여 인간 측이 도대체 어떤 고질병을 앓고 있기에 마음 받이 이토록 한전으로 변질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세에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는지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진단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치료책

67 김상준, “秋收의 雨를 빌나,” 167-68.

들을 제시했다.

3. ‘전’(轉)의 단계: 고질병 진단 및 치료책들

김상준은, 성령께서 말세에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는 이유로서 부패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줄곧 죄를 범하는 행태를 고발했다. 그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과학자들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 학리적으로 설명하여 논증하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초한 형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그에 의하면, 여기서의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비를 가리키며 이는 종말을 준비하시는 성령을 비유한다. 그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징후들과 세세한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행위에서 기인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인간들이 종말을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정확한 단서를 인간의 죄 문제에서 탐색했다. 아래 인용문에서 그는 ‘雨[늦은 비]: 秋雨-연구자 주]가 오지 아니함은 곳 人의 罪果’라고 단정 지었다.

雨[늦은 비: 추우-연구자 주]가 나리지 안는 理由. 大抵 雨가 나리지 아니함이 何故[무슨 까닭-연구자 주]이나 ㅎ면 科學者 等은 必然 學理的 說明을 吐ㅎ 겠지마는 聖經을 보면 爾等[이등: 너희들-연구자 주]이 萬一 我的 말을 좃치 아니ㅎ면(신명기二十八〇十五) 天이 銅과 鐵 되게 ㅎ겠다(신명기二十八〇二十三) ㅎ섯스니 此는 곳 人이 하느님의 罪를 犯ㅎ면 그 罰노 天을 銅鐵과 鐵 되게 쳐서 雨를 내리지 안겠다 ㅎ심이올시다. 일노 말릭암아 볼 것 ㅎ르면 雨가 오지 아니함은 곳 人의 罪果인 거슬 可히 알겠습니다.⁶⁸

이렇듯 김상준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고질적인 난제가 인간 측의 범죄행위에 기인한다고 진단한 후에 실천적 차원에서 두 가지의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하나는 범과에 대해 통회 자복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도록 기도에 힘써야 할 과업이라고 했다.

68 김상준, “秋收의 雨를 빌나,” 168-69.

첫째, 김상준은 이 고착화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안은 오직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길뿐이라고 했다. “雨[성령에 대한 비유-연구자 주]를 비는 方法. 罪의 罰노 오지 않는 雨를 빌나면 人이 반다시 哈느님의 그 罪[자신이 범한 죄-연구자 주]를 悔改하며 祈禱하는 거시 곳 그 唯一 方法이외 다.”⁶⁹ 그는 범한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직고하고 회개의 기도를 아뢰어 사죄의 은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는 것이며 늦은 비로 추수를 준비하시듯 이 말세에 ‘영우(靈雨)’ 즉 성령의 사역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다.⁷⁰

둘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언약을 신뢰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주지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체결하신 신성한 언약은 근원적으로 유언과 맹세의 본질을 담기에 항존적(恒存的) 유구한 속성을 갖는다.⁷¹ 김상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과 인간의 기도는 한 지평 위에서 상합되는 교류적 속성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쌍방성의 의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쌍방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과 신자의 기도의 합(合)이라고 정의했다. “오- 형데姉妹여. 哈느님의 約束과 信者의 祈禱가 合하여야 되는 거슬 김히 注意하고 熱心 祈禱로 懇求할 거시올시다.”⁷²

이처럼 김상준은 ‘기’의 단계에서는 풍년의 역학적 구도를, ‘승’의 단계에서는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진’의 단계에서는 고질병 진단 및 치료책들을 제시한 후에 마지막 ‘결’의 단계에서는 한국그리스도인들이 구령사역에 나서 성실하게 민족복음화의 책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4. ‘결’(結)의 단계: 한국그리스도인의 민족복음화 책무

69 김상준, “秋收의 雨를 빌나,” 169.

70 김상준, “秋收의 雨를 빌나,” 171.

71 Cf. 이은선, “츠빙글리의 언약사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 1523-1525년을 중심으로,” 『개신과 부흥』 30/1 (2022), 97.

72 김상준, “秋收의 雨를 빌나,” 170.

김상준은 설교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국 강토를 ‘三千里 靈田(영적인 밭)’으로 명명하고 당대 30여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장로교, 감리교 등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본 논문 제2장 2절 ‘재림 지향적 증생과 성결’에서 밝혔듯이 김상준은 증생, 성결, 재림, 신유로 구축된 사중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가장 소망에 찬 미래를 제시해주는 복음의 요체이자 진수라고 확신했다. 그는 민족복음화를 호소하는 설교문 마지막 문단에서 농부, 씨, 열매, 추수, 결실과 성숙, 단(다발), 삼천리 영전, 가을비, 추수관 예수, 재림, 공중, 찬송, 추수군 천사들, 코러스, 천국창고 등의 용어들을 키워드로 동원하여 조국강산이 속히 복음화 되고 한민족이 그리스도께로 귀의할 것을 간절히 염원했다. 그의 최종적인 소망은 “天國倉庫에 ㅎ 가지로 드러가시기를 ㄹ랍니다.” 이 구절에 농축되어 있다. 아래 인용문은 설교문 “秋收의 雨를 ㅼ나”의 마무리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며 중략 없이 전문을 옮겼다.

最終에 ㅎ 말노 前後를 거두어 結末 ㅎ고 ㄱ치고저[마무리하고자-연구자 주] ㅎ니다. ㄹ 팔네스틴 農夫가 씨를 뿌린 后에 每日 貴 ㅎ 열미를 ㄹ라고 秋收의 雨를 ㅼ다가 雨가 와서 結實 成熟 ㅎ면 거두워 단을 묵거드리는[묵어 드리는: 전도사역-연구자 주] ㄱ과 ㄱ치 ㅼ人 等은 此 三千里 靈田에 秋雨를 크게 주심으로 三十餘 萬의 聖神의 처음 익은 열미들이 어서어서 結實(회기와 新生과 聖神의 열미) 成熟 ㅎ야 秋收官 되시는 예수씨서 再臨 ㅎ샤 監理會 長老會 其他 教派 中에서 ㄱ뵈므로 단을 묵거가지시고 ㄹ 空中으로 올라가실 時에 우리는 讚頌을 부르며 ㄹ 秋收軍 되는 千千萬萬의 天使들은 코라스 [chorus-연구자 주]로 和答 ㅎ여 올라가 天國倉庫(즉 ㄹ당)에 ㅎ 가지로 드러가시기를 ㄹ랍니다. 아멘.⁷³

김상준은 설교문 “秋收의 雨를 ㅼ나”를 기승전결의 구도를 갖추어 전개함으로써 풍년의 역학적 구도,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 고질병 진단 및 치료책들, 한국그리스도인의 민족복음화 책무 등을 순차적으로 논증했다. 이로써 자신의 대표적 저서인 『四重敎理』와 『默示錄講義』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73 김상준, “秋收의 雨를 ㅼ나,” 172. 괄호로 처리된 성경구절은 본 연구자가 생략했음.

재림관을 삶의 현장인 삼천리 영전으로 외연하여 적용하고자 했다. 그의 재림관은 단순하게 천상의 이데아 세계만을 바라보는 논리체계에서 머물지 않는다. 그는 “秋收의 雨를 빌나”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호소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을 유기적으로 결속시키는 지행일치(知行一致)의 귀감을 보여주었다. 그는 1907년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후 정빈과 함께 서둘러 귀국하여 염곡에서 셋방 성경공부반을 조직했고, 이후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하여 복음교육과 전도활동에 박차를 기했다. 그가 사역 초기에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성실한 사역들도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 바 없었던 한국 땅에 오직 민족복음화를 실천하기 위한 일념에서 비롯되었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김상준의 원저 『四重敎理』, 『默示錄講義』, “秋收의 雨를 빌나”(1921) 등을 중심으로 그의 종말관을 분석했다. 이 세 권의 저서는 그의 종말관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저작들이다. 이 문헌들에 나타난 중요한 논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四重敎理』에 나타난 사중복음 관점에서의 ‘재림’은 우선 중생과 성결 교리가 재림 지향적인 논리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갖는다. 김상준은 ‘중생과 성결의 연결고리’, ‘성결과 재림의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궁극적 목적 지향점을 재림에 두었다. 그는 스승 나카다 쥬지와는 달리 재림과 신유의 순서를 바꾸어 ‘중생-성결-재림-신유’로 도식화함으로써 재림의 바탕 위에 중생, 성결, 재림 교리를 구축했다. 재림과 관련하여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는 복음의 보편성,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큰 의미를 두었다. 그의 재림론에서 주목할 만한 논점들로는 초림과 재림을 일원화하여 한 지평에 병치했다는 점, ‘택자선민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중생, 성결, 재림, 신유로 구형된 사중교리 중 재림이 미래적 소망을 지향하게 해주는 중추적 교리라고 확신했다.

둘째, 『默示錄講義』에 나타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해석기법, 하늘과 땅의 일신변화 논지 등이 두드러진다. 요한계시록 기록목적에 있어서는 재림을 통해 신자들을 핍박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응징, 고난당한 신자들을 위한 신원, 재림에 대한 소망 진작, 악한 세력과 성전을 치르는 전투적 신자상이 부각된다. 김상준은 미래적 해석기법을 통해 공중재림과 휴거, 대환란시대, 지상재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과 신천신지를 주장하여 큰 틀에서는 전통적인 세대주의 노선을 따랐지만 40년 지상대환란을 주장했고, 고전적 일곱 세대를 통폐합하여 4세대론으로 압축했다. 그의 4세대론은 이천년 ‘양심시대’, 이천년 ‘양심과 율법시대’, 이천년 ‘양심과 율법과 복음시대’, 천년왕국 기간의 ‘양심과 율법과 복음과 예수의 재림시대’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四重敎理』와 『默示錄講義』가 재림관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설교문 “秋收의 雨를 빌나”는 재림관을 삶속에 적용하여 실천할 것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문헌이다. “秋收의 雨를 빌나”에 나타난 재림 교리의 ‘실천적 관점’은 기승전결 구도로 분석할 수 있다. ‘기’의 단계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 농부, 가을 추수 사이의 역학적 구도를 논증했다. ‘승’의 단계에는 종말을 준비하시는 늦은 비로서의 성령을 간구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역설했다. ‘전’의 단계에서는 인간의 고질적인 죄성과 범죄 행태를 지적하여 철저하게 통회 자복할 것과 하나님의 언약에 부응하여 기도예 힘쓸 것을 교훈했다. 최종 ‘결’의 단계에서는 민족복음화의 책무를 제시했다. 그는 ‘결’의 단계에서 한국 강토를 삼천리 영전(靈田)으로 명명했으며 30여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출선하여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의할 것을 간절히 염원했다.

본고를 마무리하며 김상준의 종말관이 한국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교훈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김상준은 사중교리의 핵심이 재림에 있다고 인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민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 그가 한국 강토를 삼천리 영전으로 칭하고 힘써 복음을 전파할 것을 천명한 대목은 그가 품었던 민족복음화의 소망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보여준다. 1990

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멈춘 채 상당 기간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했고 질적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군다나 지난 3년 어간에 걸쳐 코로나사태로 인해 신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교회 학교가 침체되는 참상을 경험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재림신앙을 통해 서둘러 신앙심이 해이해진 기존 신자들을 격려해야 하고 전도운동을 촉진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

둘째,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사상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체득하고 섭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종말사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심판을 기대하고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게 하며 숭고한 신앙심을 고취해주는 역동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점차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진입하면서 과학주의, 물질만능주의, 생명경시, 인공지능, 가상현실,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현상, 윤리적 탈선, 맘몬이즘, 극도의 실용주의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 현세의 물질세계에 집착하여 유물사상에 심취하고 이데아의 세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도외시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사상을 고취해주어야 하고, 특별히 배움의 과정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종말론 관련 과목들을 깊이 있게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Dawson, W. Bell. 『오는 소망』. 京城: 耶蘇教長老會總會教育部, 1934.
- Scofield, Cyrus I. *The Scofield Bible Correspondence Course*.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07.
- Swallen, William L. 『묵시록공부』. 京城: 朝鮮耶蘇教會, 1922.
- The Minutes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Seoul, Sept. 12-17, 1906*.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6.
- 가옥명. 『來世論』 정재면 역. 平壤: 長老會神學校, 1931.
- 基督教大韓聖潔教會 編. 『憲法』. 서울: 基督教大韓聖潔教會出版部, 2001.
- 길선주. “末世學(十四).” 『信仰生活』 5/10 (1936. 11), 8-12.
- 길진경 편. 『靈溪 吉善宙 牧師 遺稿選集(第一輯)』. 서울: 大韓基督敎會, 1968.
- 김경선 편. 『聖經的 基督敎 敎理와 各 敎團의 敎理信仰告白信條들』. 서울: 여운사, 1998.
- 김상준. 『四重敎理』 최규명 역. 牙山: 韓國聖潔教會歷史博物館, 2010.
- _____. 『默示錄講義』. 平壤: 基督書院, 1918.
- 김성호. “發刊의 글.” 김상준, 『四重敎理』 최규명 역. 牙山: 韓國聖潔教會歷史博物館, 2010, 5.
- 김승곤. “사중복음의 예배 의식을 통한 예배 갱신.” 『성결신학연구』 4 (1999), 197-212.
- 김정현. 『末世論』. 京城: 彰文社, 1928.
- 김형락. “사중복음적 예배를 위하여: 예배와 목회예식에 사중복음을.” 『活泉』 752/7 (2016), 48-49.
- 김희창. 『聖潔教會 歷史와 宣敎』. 서울: 새순출판사, 1999.
- 박영환. “사중복음과 선교.” 『교수논총』 17 (2005), 155-82.
- 박형룡. 『敎義神學: 救援論』.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_____. 『敎義神學: 來世論』.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 聖潔教會歷史와文學硏究會 編. 『聖潔教會人物傳(제1집)』. 서울: 一正社, 1990.
- 송영목. “종말론과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 베드로후서 3:10-13을 중심으로.” 『갱신과

- 부흥」 27/1 (2021), 65-96.
- 송흥국. 『웨슬레 神學』. 서울: 大韓基督敎書會, 1979.
- 안수강. “김상준(金相濬) 목사의 『四重敎理』(1921)와 그 이후 한국 성결교회의 ‘四重福音’ 과의 상이점 비교 연구.” 『장신논단』 53/5 (2021), 87-115.
- _____. “해방 전 한국에 소개된 종말론 문헌 고찰: 장로교 선교사들의 저서와 번역서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30/1 (2022), 221-60.
-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 예수敎大韓聖潔敎會事務局 編. 『예수敎大韓聖潔敎會 憲章』. 서울: 예수敎大韓聖潔敎會總會本部, 2002.
- 윤철원. “사중복음의 해석과 주석적 근거.” 『대학과 선교』 47 (2021), 37-72.
- 이명직. “大患難時代.” 『活泉』 제50호, 17-20.
- _____. 『朝鮮耶蘇敎 東洋宣敎會 聖潔敎會畧史』. 京城: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1929.
- 이은선. “츠빙글리의 언약사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 1523-1525년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30/1 (2022), 87-124.
- 이지명.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聖經雜誌』 1/6 (1918), 6-9.
- 이천영. 『聖潔敎會史』. 서울: 基督敎大韓聖潔敎會, 1970.
- 전요섭.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에 기초한 목회상담의 과정.” 『복음과 실천신학』 1 (2000), 124-57.
- 정상운. 『聖潔敎會와 歷史研究(I)』. 서울: 이레서원, 1997.
-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2/3 (1919. 10), 48-68.
- _____. “예수의 再臨과 敎會의 關係.” 『聖經雜誌』 4/2 (1921), 1-8.
- _____.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 『聖經雜誌』 3/6 (1920), 18-22.
- 정인교.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설교에 관한 소고: 활천에 실린(1922-1959) 사중복음 설교를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32 (2006), 249-71.
- 조기연. “초기 기독교 세례예전과 사중복음.” 『신학과 실천』 61 (2018), 61-89.
- 최희범. “한국성결교회사 소고.” 『活泉』 346 (1970), 25-28.
- 홍성국. “사중 복음의 신약적 조명: 예수님의 생애와 회심공동체의 경험을 중심으로.” 『복음과 신학』 2/1 (1999), 45-87.
- 홍종국. 『영암(靈巖) 김응조(金應祖) 목사의 성결·성화론: 나는 심령이 살았다』. 서울: 한들출판사, 2011.
- 홍종숙. 『默示錄釋義』.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13.

『묵시록주석』. Charles A. Clark 외 2인 공역.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저자 미상.

『묵시록주석』. 민준호 역. 京城: 東洋書院, 1913. 저자 미상.

[Abstract]

**An Analysis of Rev. Sang-Jun Kim's Views of Eschatology
: Focused on *Four-fold Doctrine*(1921), *Lecture on
Revelation*(1918), and "Pray for Autumn Rain for
Harvest"(1921)**

Su Kang Ahn

(Baekseo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Church History)

This paper aims to analyze Sang-Jun Kim's views of eschatology, focusing on *Four-fold Doctrine*(1921), *Lecture on Revelation*(1918), and "Pray for Autumn Rain for Harvest"(1921). His meaningful views of eschatology are based on these three masterpieces published around 1920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 prominent points of his views of eschatology in these three work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author deals with four-fold gospel and various sub-topics related to these doctrines, regeneration and sanctification on the basis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understanding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focusing on *Four-fold Doctrine*. Secondly, the author concentrates on the purpose of recording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ture-oriented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he qualitative change of the sky and the earth, focusing on *Lecture on Revelation*. Thirdly, the author studies the mechanical composition for a good harvest(the metaphorical expression of Jesus Christ's second coming and last judgment), the mission of prayer for autumn rain(the metaphorical expression of Holy Spirit), chronic diseases and remedies of Korean Christians, the responsibilities of Korean

Christians for national evangelization, focusing on sermon “Pray for Autumn Rain for Harvest”. Fourthly, the author proposes practical lessons to today’s Korean Christians on the basis of the meaningful content of this research such as the revitalization of eschatological education, the efforts for national evangelization, and so on.

Key Words: Sang-Jun Kim, *Four-fold Doctrine, Lecture on Revelation*, “Pray for Autumn Rain for Harvest”, Eschatology, National Evangelization